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⑥

전기속의 佛陀 〈4〉

"오직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하라"

부처님은 머리를 북으로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신 채로 열반에 드셨다

"모든 것은 덧 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성도한 부처님은 다시 길에서 45년간 일체중생을 교화하시다 열반에 드셨다. 이 부조물은 데바닷타가 부처님을 공격하라고 풀어놓은 코끼리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아마리비티에서 출토된 2세기경의 작품이다. 마드라스 박물관 소장.

카필라의 숫도다나왕은 아들이 붓다가 되어 존경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 아들이 보고 싶어 카필라를 방문하도록 청하는 사신을 보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부처님이 회고해 보니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열두해가 넘어 있었다. 부처님은 2만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수도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직전 태어났던 아들인 라훌라와 왕위를 계승할 아우 난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인 아난다와 데바닷타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다. 특히 이 두 사촌형제 가운데 아난다는 일생을 바쳐 부처님을 공경하고 시봉하였으나, 데바닷타는 부처님 교단에 반역하여 부처님을 괴롭혔다.

어느날 어부들이 당나귀, 강아지, 망아지, 원숭이 등의 서로 다른 머리가 백개나 달린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부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길, "그 물고기는 전생에 수도승이었는데 어리석게도 동료들을 '당나귀 대가리', '강아지 대가리'하며 놀려대다가 이 생에서 저런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데바닷타는 종단의 개혁을 주장했다. 승려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노천에서 자야하며 물고기 음식은 피하고 성안이나 민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데바닷타의 음모는 세번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설(異說)에 의하면 부처님에게 달려든 코끼리의 수가 수십마리에 이른다고 했다. 그때 부처님의 손가락에서 사자들이 뛰쳐나와 코끼리를 물리쳤다고 한다. 마침내 분노한 대지(大地)는 데바닷타를 삼켜서 영원히 화염속에 휩싸이게 했다. 부처님께서 데바닷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먼 옛날 큰 거북이 한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인의 목숨과 짐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뭍에 오른 그 상인은 배은망덕하게도 선행(善行)을 한 그 거북이를 잡아다 불에 구워 먹었다" 부처님은 이야기 말미에 "그 상인이 바로 데바닷타이고, 난 그 거북이였다"고 말씀하셨다.

베살리 시(市)에서 부처님은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던 여인인 암바팔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후에 자신 소유의 농원을 승단에 기증하게 된다. 이렇듯 부처님은 유녀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생을 근기에 맞게 교화했다.

45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 악신(惡神) 마라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말하길 "이제 종단도 확립되고 승려의 수도 충분하니 그만 이 세상을 떠나시는게 어떠냐고 전했다. 부처님은 석달 뒤에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땅은 전율했고 태양은 어두워졌으며 폭풍이 몰려와 뭇생명은 겁에 질렸다.

전설에서는 부처님은 몇 천년이라도 살 수 있지만 자의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사후 부처님은 인드라천(天)으로 올라 가서 불법(佛法)의 보호를 당부하셨다. 그 다음 용궁으로 내려가셔서 용왕으로부터 불법의 수호를 약속받으셨다. 신들과 용들과 악마들과 땅과 별의 정령들과 나무와 숲의 정령 등 모두가 부처님께 죽음을 거두시도록 간청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상(無常)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대답하셨다. 쿠시나가라에서 금세공(金細工)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병이 악화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신 후, 나무 아래 누우셨다. 나무는 놀래서 갑자기 꽃을 피웠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에 종단의 분열과 불화를 예언하셨다. 그리고 오로지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머리를 북으로 향하고 얼굴은 서쪽으로 바라보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신 채로 열반에 드셨다. 때는 죽음을 맞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인 저녁무렵이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보르헤스는 생각하기를, 궁극적 진리는 이성적 논리보다는 오히려 신화나 설화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작가인 보르헤스는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전(佛傳)〉이나 〈불소행찬(佛所行讚)〉 등에 문학적으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가르침에 주목했다.

그는 불교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전승 설화를 집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첫장의 소제목을 서구인 기준으로 '전설상의 佛陀'라고 붙였다. 편역자는 그대로 직역하였는데 한국 독자들의 오해가 염려돼 이번 호부터 제1장 제목을 '전기속의 佛陀'로 바꾼다.

나의 수행일기

김 성 규 〈영남대 교수〉

'색즉시공 공즉…' 독송하며 전율

남산 칠불암 마음의 고향…석굴암서 '견성' 발원

나는 전생에 수행자였던 것 같다.

처음 불교를 접하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에 한 점 흐트러짐도 없으며, 내가 이룩해야 할 불사에 대해서 한번도 의심해 본적도 없다. 경전 되번역 불사, 이것은 내가 이생에 꼭 이루어야 할 내 일인 것이다.

이제까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환희로움이 몇 번인가 있었다.

첫번째 환희로움은 처음 불교와 마주치게 된 1970년, 반월성 벚꽃이 환하게 핀 4월의 봄이었다.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시내 법장사에서 열리고 있는 불교학생회 법회에 참석하였다. 잠시 후 반야심경 봉독이 있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다시 펼쳐놓고 읽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순간적으로 일만볼트의 초고압이 전신을 휩쓸었다.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전율로 뜬눈으로 하룻밤을 새웠다. 그 후 몇개월 동안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후 고1 어느 토요일 밤에 분황사 법당의 부처님 뒷켠에서 다리 틀고 앉아 '육조단경'을 읽었던 인연으로 반드시 나도 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칠불암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원효스님이 남산의 혈사에서 일생을 마감했듯이 나도 남산 성지에서 내 뼈를 묻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 그 해 여름방학은 도문스님의 배려로 남산 칠불암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때 안흥부 형님이 지도를 해 주셨고, 정강주 선배님이 계셔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다. 우리들은 칠불암 밑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요사채에서 묵고 있었다. 어느날 밤 폭우가 쏟아져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집이 무너져내릴 것 같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몇 년 후 칠불암을 찾았을 때 그 요사채는 흔적도 없었다. 정감어린 요사채가 없어지고 보니 우리 집 같은 기분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손님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꼭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칠불암에는 물이 없어서 밑에 있는 요사채의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 당번이었다. 그러나 신나는 일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칠불암에서 가파른 산 길을 3백여미터를 단숨에 올라가면 신선암 마애보살상과 원효와 대안이 참선했던 참선대가 있고 그 참선대에서 참선하는 일이었다. 여명이 밝아오면 서서히 경주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찬란한 태양이 정면으로 온 전신을 비추고 온통 산을 붉게 물 들이면 그대로 화엄 세계에 빠져버린다.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이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성하겠다는 원을 세웠고,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도 맹세 맹세하였다.

온 산을 울리고 모든 생명들을 잠에서 깨우는 새벽 도량석의 목탁소리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로 토요일 오후가 되면 법회를 마치고 종종 칠불암에 올라왔다. 밤이 새도록 참선을 하고 다음날 산을 내려갈 때면 꼭 도인이 된 기분이었다. 어떤 때는 분황사와 황룡사지에 놓여져 있는 넓은 바위에 앉아서 밤새도록 참선을 하다가 새벽 이슬에 온 몸이 촉촉히 젖기도 하였다.

원효가 지은 '대승기신론소'는 잊을 수 없는 책이다. 처음 대승기신론소를 펼쳤을 때 삼귀의에 대한 해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이 목숨을 거두어 진리의 바다에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에 몰입되어 몇 시간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새롭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외우던 삼귀의의 진정한 뜻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다.

내가 경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경주에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도의 반은 이룬것 같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경주에서 태어날 것이며 진리의 성지 경주 남산에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일생을 바칠 것이며 경주에다 내 뼈를 묻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탓하랴
내가 태어난 이 땅을 탓하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탓하랴
아서라
내가 선혜와 같이 지극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불토인데.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실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신체 복용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숙면, 해독제, 열분 · 자연당 · 식품심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열분심해수련 · 신관심해수련 · 전단수련
• 신관탄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정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천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리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군 승 단

육 · 해 · 공군 군승단에서는 군포교를 함께 할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명
자 격 대졸이상 남자로서 군종병 출신이거나 신심있는 불자로서 PC가능자
보 수 교계보수수준
문의 및 연락 군승단 사무실 (748-1728, 749-8646)

한민족정통 (단전 기 호흡) 수련법
제1기 지도자 과정모집

◆수련과정,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운기법 36동작 육기법, 생식법, 심관법, 쑥뜸법
◆지방출장 지도 가능함
◆일시 : 3월 24일부터 6개월 과정
◆매주 일요일

특전
1. 수료증, 지도자 자격증 발급
2. 수료자는 본회의 종신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및 해외에 도장을 개설할 수 있음.
3. 도장 개설시 본 협회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함

■회비 : 500,000원
■전화 : (02)735-6795, 6796 / 팩스 : (02)730-9298

한국신선도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빌딩 4층
한국신선도협회 지도 : 회장 이해창

사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본인은(49세, 女) 가족이 없는 혼자 몸으로 사찰에서 스님을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 (서울) 914-920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옥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옥각
• 포천(학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화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가정교사」 특별제공 (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